

“세상 희망은 아이들에게 있고 아이들의 희망은 책 속에 있죠”

신예정 매니저가 제안하는 ‘헌책방으로 떠나는 시간 여행’

여름방학하면 세상을 다 가진 듯 동네 이곳저곳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던 시절은 이제 정말 옛말이 되었나 보다. 그 많은 동네의 아이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

방학숙제도 식물재집이나 탐구생활은 옛것이 되었고, 문제집 풀기 혹은 무슨 무슨 캠프체험기 일색이며, 학교가 문을 닫는 대신 각종 학원가 주변으로 아이들이 가득하다.

세태가 이렇다 보니 6월에 아름다운가게 헌책방 문을 열고 여름방학이 되어 많은 아이가 책방으로 모여들길 기대했던 내 바램은 보기 일그러졌다.

도리어 학기 때보다도 더 아이들이 오지 않아 다시 한번 지금 현실의 아이들 생각해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 래도 하루가 멀다 하고 책방 문을 열기 전부터 문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단골 어린이 손님들을 보면 저절로 미소가 자아진다.

책방의 나무그늘 아래서 엄마와 아이가 도란도란 책을 읽는 모습이라던지 친구들끼리 물려와 책장 구석에 모여 누구의 책이 더 재밌는지 내기 하듯 독서에 열중하는 아이들, 조금

은 소란스럽더라도 책장 사이사이를 까르르 웃으며 휘젓고 다니는 귀여운 꼬마들과 마주하고 있다 보면 서로들 목소리를 높이고 경쟁하듯 사는 바깥 세상과는 조금 다른 시간을 살고 있는 착각이 들기도 한다.

여름 더위가 절정에 다다르고 개학 날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책방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였든 다가오는 개학을 대하는 아이들의 심정만큼은 여전히 아쉽고, 안타깝다.

어른들의 생각대로만 이끌려고 해서 그렇지 어느 시대의 아이들이건 마음껏 뛰어놀고 싶고, 만화책이든 위인전이든 읽고 싶은 책도 실컷 볼 수 있는 여름방학이길 원치 않았는가.

세상의 희망은 아이들에게 있고, 아이들의 희망은 책 속에 피어난다. 아쉬운 여름방학이 다 가기 전에 책 속에서 꿈을 키우고 희망을 나눌 수 있는 헌책방으로의 멋진 시간여행을 계획해보는 건 어떨까.

신예정

〈아름다운가게 헌책방 광주용봉점 매니저〉



지난 6월17일 문을 연 아름다운가게 헌책방 용봉점은 동네아이들의 놀이터로, 아주머니들의 사랑방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아름다운가게 헌책방 제공〉

▲아름다운가게 헌책방=‘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헌책방이자 문화공간으로 지난 6월17일 광주 용봉동에 문을 열었다.

시민들의 기부로 만들어진 헌책방에는 2만여권의 책을 비치하고 있으며 책과 함께 네팔, 칠레, 우간다 등 제3세계 국가에서 유기능으로 생산된 커피와 페 가죽, 의류 등을 활용해 만든 아이디어 디자인상품도 판매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30분~오후 7시 문을 연다. 문의 062-514-8975

■ 칭찬합시다

불편한 몸에도 진정한 봉사 일깨워 주시는

남구 자원봉사센터 이순자씨 건강하세요

보통 길을 가다 이웃을 만나면 안부를 묻는게 인자상정이다. 그런데 남구자원봉사센터의 이순자(여·65·광주시 남구 주월동)씨를 만나면 사람들은 안부를 묻기 전에 먼저 하는 말이 있다. “오늘은 봉사 안가세요?” 언제부턴가 봉사라는 말이 이씨의 삶을 대변하고 있다.



계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겠느냐며 봉사는 결코 남을 돕는 일만이 아니라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씨는 대한적십자사와 여성발전센터, 사랑의 쉼터, 남구노인복지관, 장애인협회, 보훈병원, 신예원 등 힘든 곳에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20년동안 봉사를 하면서 가장 잊을 수 없었던 때는 교도소에서 했던 말벗 봉사라고 한다. 당시 교도소에 봉

사를 하기 위해서 2만원이 필요했는데 1만원은 영치금으로 쓰고 1만원은 간식을 사서 수감자들에게 나눠줘야 했기 때문이다.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수감자들의 외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며 함께 시간을 보낸 이씨.

이렇듯 그녀가 지금 건강이 좋지 않다. 무릎이 아파 걷는 게 힘들지만 쉬지 않고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의 가장 큰 후원은자 남편 박창현씨다. 남편과 함께 봉사활동 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봉사는 남을 돕는 게 아니라 자신을 돕는 것이며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하는 이씨가 빨리 건강을 되찾아 더 많은 사람들의 빛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경란·광주시 남구청

독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립니다

‘독자와 함께’는 우리 고장 가네스, 이웃 미담, 공동체 생활, 삶터 자랑, 추억의 사진 등을 보도하는 열린마당입니다.

‘숨겨진 자랑’에 실릴 수필, 편지글, 사진 등 투고도 받습니다.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교료를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독자와 함께’ 담당자 앞.

팩스 062-222-4937, e-메일 opinion@kwangju.co.kr.

클릭! 맛집



물회에 초고추장...새콤달콤 ‘맛의 하모니’

여름 별미 자리돔 물회 ‘침이 꿀꺽’

■ 광주 화정동 ‘제주도 바다’

자리돔물회 한 그릇이면 뱃속까지 시원해지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광주시 서구 화정동 서부소방서 사거리 ‘제주도 바다’(업주 양희보)는 웅케 제주도 근해에서 잡히는 자리돔을 공수해 온다.

포항과 거제도의 고깃배들이 제주도 인근에서 잡아온 살아있는 자리돔을 매주 활어차로 공수해 손님상에 내놓고 있다. 이 집의 특징은 물회에 초고추장을 쓴다는 것. 제주도 자리돔물회는 된장으로 맛을 내지만 이 집은 초고추장으로 맛을 낸다.

먹기 좋은 크기로 썬 자리돔과 채소에 얼음을 동동 띄워 새콤달콤한 맛을 살렸다. 비린내가 없고 고소하다. 시원한 국물에 담긴 오이, 무, 당근, 깻잎이 만들어내는 ‘맛의 하모니’도 환상적이다.

이미 입소문이 퍼져 광주에 거주하는 제주도 사람

들도 자리돔을 맛보겠다고 물려들 정도이다.

무엇보다도 야채와 국물만 많고 횡감은 시능만 낸 여는 집과는 달리, 즉석에서 다듬은 자리돔을 푸짐하게 넣어 고소한 맛이 더욱 일품이다.

자리돔은 값이 그리 헐하지 않고, 산 채로 가져오는 비용도 비싼데 2만원만 내면 2명이 배불리 먹을 수 있다. 남은 국물에 함께 내오는 국수를 말아먹으면 되기에 따로 밥을 주문할 필요도 없다. 양이 적다고 느껴지면 밥(1천원)을 추가 주문하면 된다. 자리돔물회 2만~4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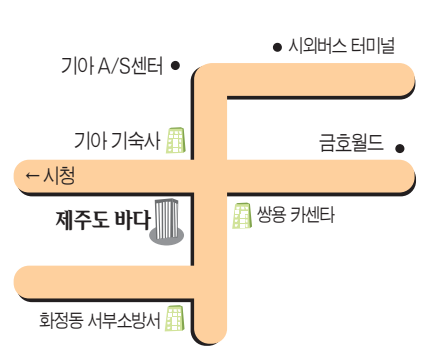
회로도 먹을 수 있는데, 자리돔 자체의 고소한 맛까지 어우러져 한번 맛보면 다른회는 거들떠보지도 않을 정도다. 화는 3만~5만원. 또 오븐에 구워오는 자리돔구이는 술 안주로 그만이다. 자리돔구이 1만5천원.

4~5명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자리돔정식(8만원)을 시키면 이들 요리를 한꺼번에 맛볼 수 있다. 가져오는 자리돔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약은 필수. 문의 062-385-0807. /글·사진=오광록기자 krah@



〈자리돔 구이〉

■ 찾아가는 길



대인동삼일부동산

☎ (11)223-1140, 3210 ☎ 011-602-2532 (명주은행 신본점 옆,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에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 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무랜드 공인중개사

T: 383-5221 H: 011-609-5221 (구 상무대 정문)

- ▶빌딩(대형, 투자용)
 - 토지600평 건물1,350평(매가66억)
 - 보증금37억/월세3,300만원 용적12억
 - 토지1200평 건물2,500평(매가90억)
 - 보증금7억/월세8,000만원(용적50억)
 - 토지590평 건물750평(매가 98억)
 - 보증금40억/월세2,000만원 용적12억
 - ▶토지
 - (상무지구 상암지대) (회사내, 병원, 학원, 기타부지 등)
 - 834.5㎡(250평) - 매가 4200만원 (골프코스 구장과 대가학스 중간사거리까지)
 - 611㎡(185평) - 매가 6800만원
 - 1650㎡(500평) - 매가 1,2000만원 (상무우두물영원주변)
 - ▶기타용도
 - (농장) 73,000㎡(22222평) - 매가 10억원(동산동)가주자로 좋은곳
 - (농지)상각용 약 3000평 - 매가 3000만원-고려고추원(마트예상장 동쪽)
 - ▶호텔/모텔
 - 상무지구 성형원 호텔 호텔 다수있음 - 현금 20억 투자 1부 이상 수익률 가능함
 - ▶상가 매매 (상무지구, 상무역주변)
 - 상가 150평(10층) - 매가 4200만원 - 개발될 것 있음. 학원, 특설, 사무실 등 적용
 - 새마을시장 주변 약 1000평 - 매가 1000만원 - 대형 의무장 가능 상가 전매/상당 가능
-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리겠습니다. 아무 때나 전화하십시오.

경매취하합의부동산

현재 시세 15~50% 할인 매물

아파트·단독·다세대주택·상가·토지

- 금융권 경매 취하 부동산 매매
 - 개인권 경매 취하 부동산 매매
 - 기타권 경매 취하 부동산 매매
 - 경매 예정 진행 부동산 상담
 - 경매 잔금 대납 부동산 상담
 - 부동산 재테크 투자 상담
- 부동산·경매·금융(부동산 담당)업 초보 경력 사원 및 동업자 모집

금호부동산컨설팅

☎ 224-5959, 010-2831-1733
광주광역시 동구 총장로 4가 36-3번지

국민공인중개사

☎ 011-635-7939, 010-2810-6103 (공시지가 이하 및 급 매물 중개 전문)

- ▶공시지가+건물과표15억/매매가11억
- ▶대지300평건물450평보증금1억5천20m도로점
- ▶분양가8억아파트1300세대상가매매가2억5천
- ▶36m도로 점 1층 상가 건물 약 100평 지분 93% 한의원 내과 적합
- ▶공시지가+건물과표6억매매가3억5천
- ▶현재현의원경매중대130평건230평상업지역
- ▶공시지가+건물과표7억매매가4억2천
- ▶대 100평 건 300평 상업지역
- ▶상업지역약95p
- ▶공시지가3억5천매매가2억4천30m 도로 점 남해바닷가 700,000p 임야 140억, 골프장 태양광
- ▶32억빌딩매매
- ▶대 200p 건 450p 토 8억월 월2350만원 용 13억포함
- ▶관리지역12억
- ▶강정가45억매매가24억5천
- ▶빌딩매매대지500평건물1000평지하1층, 지상5층전체공실
- ▶화순주유소매매
- ▶대 600p 세차시설 카센터 주유기 12대 매 12억 용자 6억포함
- ▶화순,정리,요양원,필장부지
- ▶9500p 현재 활동량 창고관리실 주택조경수 식재 딱 4억5천
- ▶59억 빌딩 대 1000㎡ 건 5500㎡ 보증금 20억 월세 4천 용자 15억 포함
- ▶장성업야사슴목장,별장 100,000p 4억7천
- ▶장성 포지적 할전지밭 600p 7000만원
- ▶원동매매
- ▶계림동홀플러스대115p,건200p보증금1억,월세425만원
- ▶공시지가+건물과표 15억 대 300p 건 350p 매매 11억

경매전문회사 (주)호남경매컨설팅

☎ 062)228-6600
☎ 010-5616-8988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1 (2층)
(법원·검찰청 정문 앞, 광주은행 맞은편 2층)

“23년 역사의 경매전문회사”

- ▶유치권, 법정지상권등 정확한 권리분석
- ▶통계자료와 시세분석에 의한 최적의 낙찰가 제시
- ▶제1,2금융권을 통한 최저금리로 부족한 경락
- ▶진금 대출앞선(낙찰가의 50%~80%)
- ▶소유주, 임차인들의 신속한 명도(이사)

☎~ 지금 전화 주십시오!
전국 3만여건의 경매물건 중에서 원하시는 경매물건을 찾아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